

**중보기도의 동역자님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께 티후아나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1.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년도 VBS 교사 강습회는 54개의 교회가 참석하여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 “Exaltado” [높은, 고귀한]의 주제를 가지고 “벤엘선교센터”와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2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찬양&율동, 성경공부와 설교, 교사훈련과 행정, 크레프트와 게임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5일동안의 VBS 준비와 사역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파송교회인 나성복부교회 단기선교팀이 방문해서 강의와 점심식사로 사역에 동역해 주셨습니다.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VBS사역을 포기하는 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회별로는 U\$50 상당의 VBS준비물 박스를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매년 동역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했는데, 11년 동안을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4개의 교회에서 VBS를 통해 복음전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 티후아나 “벤엘선교교회”, 영광의 왕 교회” “새 하늘교회” “구원의 반석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 영광의 왕 교회는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도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직장 출근 일수만큼 급여를 받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기꺼이 2~3일씩 허락을 받고 직장 대신에 교회 VBS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전도를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 **간증** : 새하늘 교회 리카르도 목사님 둘째 딸이 마약조직에 납치되어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왔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다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 난민으로 미국으로 도피했었습니다. 무기를 지니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잠하기를 기다려 교회문을 열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이웃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 1년의 침묵의 시간까지... 약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새하늘교회에서 VBS를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리카르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2명의 어린아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았던 손바닥 만한 구름이 비가 내릴 사인으로 생각하며 VBS를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VBS에 동역할 선교팀이 34명의 신청자가 11명으로 줄어서 오셨고, 평균 연령도 65세였습니다. 새하늘 교회 성도들과 3개의 전도팀을 만들어 40분동안 온 동네를 돌며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도팀이 나가서 집집마다 문들을 두드리는 동안, 중보기도팀은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 하옵소서!

슬그머니 열리기 시작한 전도의 문은, 3일 째는 140명의 인원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동안 중단했던 어린이 예배가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가족과 이웃전도를 위한 장년층 VBS를 가졌습니다(9.15~18)



가족 구원과 이웃전도를 위해 장년층을 위한 VBS를 베델선교교회에서 3일동안 가졌습니다. 첫날은 멕시코 독립기념일과 겹쳐서 참석자들이 멕시코 전통 복장을 입고 말씀과 간증, 크레프트와 게임 그리고 의료봉사를 통해 마음만은 어린시절로 돌아가서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음식인 뽕촐레를 함께 먹으며 육신의 해방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개강. (9월 9일)

2025년도 2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여름사역을 나누며 교제하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후반기에 저는 Q.T.강의, 어린이 설교준비와 예배, 교회행정, 특별행사지도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3명의 목회자가 신학교에 편입을 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강의가 이루어 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3. 티후아나 뱌엘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5일(주일)부터 뱌엘선교교회 예배장소를 신학교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뱌엘선교센터 예배당이 비좁아 주일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회와 특별 활동등을 고려해 예배 장소를 이전하려고 천재 3명의 목사가 목수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예배실과 청소년 성경공부방이 부족한데 다행히 여름에 방문하신 단기선교팀의 특별헌금을 가지고 신학교 마당에 예배실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11월말 겨울비가 내리기 전까지 모든 지붕공사와 물받이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그리고 부족한 건축 후원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새하늘교회, 구원의 반석교회, 영광의 왕교회가 어린이사역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후반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선교사 드림

Timoteo YW PARK